

요약부터 말할게. 이 본문은 입력일 기준 확인된 숫자만 사용했다. 글로벌 데이터가 비어 있는 부분은 해석하지 않았다.

#### \*\*PART 1 — 어제 낙찰/수요예측 한눈에 보기\*\*

- 낙찰 구조화 건수: 4건
- 구조화 낙찰금액 합산: 5,600억
- 최고 응찰배율: 한국동서발전 16D 4.76x
- 최저 응찰배율: 한국주택금융공사 7D 1.64x

| 발행사(등급) | 만기 | 금리/스프레드 | 금액 | 응찰 | 구분 |  
 | :--- | :--- | :--- | ---: | ---: | :--- |  
 | 한국주택금융공사(A1) | 7D | 2.91% | 1,100억 | 1.64x | CP/전단채 |  
 | 한국가스공사(A1) | 22D | 3.1% | 1,600억 | 1.88x | CP/전단채 |  
 | 한국동서발전(A1) | 16D | 4.0% | 1,700억 | 4.76x | CP/전단채 |  
 | 중소기업진흥공단 (사)(AAA) | 3Y | 민평+3.0bp | 1,200억 | 1.92x | 공사채 |

판단: 공사채/전단채 쪽 응찰이 통안채보다 강했다. 다만 이것만으로 금리 방향을 단정하지 않고, 다음 발행의 언더/오버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.

#### [수요예측 결과]

수요예측 결과 수집 안 됨.

#### \*\*PART 2 — 발행/공급 캘린더\*\*

발행 물량 합산 데이터 수집 안 됨.

익일/다음 입찰:

- 한전(AAA): 27 개월 (28.10.10) / 33 개월 (29.4.3) / 36 개월 (29.7.2) / 총 1.5 조 (27 개월 5,000 억 / 33 개월 3,000 억 / 36 개월 7,000 억 )
- 한국동서발전(AAA): 3 년 / 1,000 억 내외
- 한국가스공사(A1): 7 일물 / 8 일물 / 총 4,600 억 내외 (7 일물 2,300 억 / 8 일물 2,300 억 )
- 한전(A1): 27 일물 / 28 일물 / 총 5,000 억 내외 (27 일물 2,500 억 / 28 일물 2,500 억 )
- 한국중부발전(A1): 30 일물 / 1,200 억 내외

#### \*\*PART 3 — 금리와 커브\*\*

글로벌 데이터: 해당 메일에서 수집 안 됨. 글로벌 원인 해석은 하지 않는다.

국고 2Y: 3.587% (-1.8bp)  
 국고 3Y: 3.755% (-3.2bp)  
 국고 5Y: 3.962% (-4.5bp)  
 국고 10Y: 4.097% (-7.0bp)  
 3-10 스프레드: 34.2bp  
 RP 시작금리: 2.58% (+4.0bp)

판단: 3Y는 하락, 5Y는 소폭 상승, 10Y는 보합이다. 짧은 구간과 중기 구간의 힘이 엇갈렸다는 정도까지만 확인된다. RP 하락은 단기자금 수급 신호이지 금리 인하 확정 신호가 아니다.

#### **\*\*PART 4 — 신용/크레딧\*\***

- 은행채 AAA: 2Y -1.5bp / 3Y -3.8bp
- 카드채 AA+: 2Y -1.0bp / 3Y -3.3bp
- 회사채 AA: 2Y -1.0bp / 3Y -3.8bp

판단: 은행채/카드채 2~3Y는 대체로 축소 쪽이고, 회사채 AA 2Y만 소폭 확대다. 전반적 위험회피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고, 구간별 차별화로 보는 게 안전하다.

거래내역: 회사채/공사채/특은채 등 원문 거래 리스트가 수집됨. 개별 종목 해석은 원문 거래가 많아 별도 정리가 필요하다.

---

#### **\*\*PART 5 — 뉴스/리포트\*\***

크레딧 뉴스 수집 안 됨.

리포트 수집 안 됨.

---

#### **\*\*PART 6 — 오늘의 판단\*\***

1. 오늘 핵심은 '낙찰은 여러 건 확인됐고, 응찰 강도는 발행사/구간별로 갈랐다'는 점이다.
2. 금리는 3Y 하락, 5Y 상승, 10Y 보합으로 한 방향 장세가 아니다.
3. 내일은 응찰배율, 민평 대비 언더/오버, 국고 3Y·10Y 변화만 먼저 확인하면 된다.

DS증권 황대진 메일 기반 자동 생성